

『 10-25호 주간 심층이슈 』

CCTV 간부인사 임명 대변혁

□ CCTV 인사개혁에 대한 판단

- CCTV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방송사이다. 지난 5월 12일, CCTV는 첫 인사대변혁을 시작했다. CCTV의 이번 인사제도개혁은 그 범위가 크고 섭렵범위가 넓어 전례에 없었던 일이다. 신분(편제, 초빙)의 계파를 타파하고 혁신적으로 능력을 기준으로 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. 이는 CCTV 채널(频道)개혁에 있어 중요한 일환으로 판단된다.

□ CCTV 인사임명 개혁의 배경

- CCTV는 90년대에 인재등용개혁을 시도한바 있다. 이를테면 《동방시공(东方时空)》 프로 등 체제편성의 장애를 극복하고 채널 밖 외부인원을 초빙했다. 당시 개혁에서 CCTV에 입사한 초빙인원들 중 유명한 방송인, 사회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오늘날 CCTV 간부 가운데 주류를 이루었다.
- CCTV의 쯔우리(焦利)사장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중공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임직 시 CCTV에 <보도를 중심으로 한 채널구성>을 발전방향으로 제기했다. 그 외 국내뉴스, 국외뉴스, 사

회교육, 문예 등 뉴스프로의 취재와 편집 분야를 재통합해 뉴스중심의 편성을 요구했다.

- 2008년, 국제여론에서 중국 미디어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디어 계획을 가동했다.
- 2009년, CCTV뉴스채널이 개편된 후 러시아어와 아랍어 채널을 개설했고 3년 내에 7개 언어와 11개 채널을 증설하여 국제화 진출 목표를 세웠다.
- 2009년 12월 28일, CCTV는 정식으로 중국 CNTV를 창설했고 국제화, 다언어, 다단말기인 온라인 시청채널 공공서비스플랫폼의 목표를 달성했다.
- 2009년 12월 31일, 중국 신화사 주최로 중국 신화뉴스TV망이 개국됐고 2010년, 1월 1일부터 위성방송을 했다.
- 2010년, CCTV는 국제전파 시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했다. CCTV는 해외에 전파발전센터를 설립했고 CCTV-9채널을 중심으로 2010년 말까지 해외파견소의 수량을 50여개에 도달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7대 센터를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.

□ CCTV 인사개혁의 필요성

- 성(직할시)급 TV방송사와 지구 급 방송사들의 활성화와 더불어 CCTV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. 특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청률에 있어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.
- 3망(三网)융합의 시장 형세와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.
- 중공 중앙이 제기한 《세계 일류 미디어 건설》 방침 ■ 지시에 따라 국제 TV방송사 중에서 우수하고 선두적인 방송사로 다시 태어나야 되었으며, 국제 방송시장에서 중국의 발언권 제고와 국제 주류 미디어 행렬 가운데 우수한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했다.

□ CCTV 인사개혁의 시작

- CCTV는 중국을 대변하는 중국 제일의 TV방송사인 것만큼 중국인들

의 모습이다. CCTV의 인사개혁은 표면상에서 인사제도개혁으로 오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포된 의미가 심오하다. CCTV의 인사제도개혁은 중국 TV방송사 중에서 새로운 개혁샘플로, 중국 방송 ■ TV업계에서 새로운 개혁시점으로 나선 것이다.

- 지난 5월 12일, CCTV의 첫 인사대변혁을 시작해 7월 24일까지 무려 석 달사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. CCTV 부사장 쟡창밍(张长明)은 《경쟁을 통한 간부임용 계획》에서 CCTV가 네 차례에 걸친 선거를 진행했다고 한다. 102개의 간부직위에 대략 429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경쟁에 나섰다.
- CCTV의 사장 쏜우리는 CCTV개혁 타임테이블을 아래와 같이 선포했다.
 - 1) 《경쟁을 통한 간부임용 계획》이 끝난 CCTV는 7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예전의 센터제(中心制)에서 채널제(频道制)로 즉시 전환한다.
 - 2) 8월 1일부터 각 채널의 프로, 인원, 자금 및 물자의 분할을 마친다. 3) 8월부터 각 채널 및 센터는 새로운 체제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.
 - 4) 9월 1일부터 각 채널은 프로의 품질을 개선 혹은 제고하여 연말까지 모든 채널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제기했다.

□ CCTV 간부 경쟁임용 개혁

- CCTV의 부사장 쟡창밍(张长明)은 이번 간부 경쟁임용은 CCTV내 개혁을 심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초빙임직원들이 참가했다. 이는 기존에 실시했던 인재등용제도의 한계를 무너뜨린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.
- CCTV에는 현재 기업초빙(企聘)임직원 6,000여명, 채널초빙(台聘)임직원 2,000여명이 있다. 개혁 전 CCTV에서는 기업초빙, 채널초빙 임직원들은 잘돼야 일급 프로듀서(制片人)로밖에 될 수 없었다.

□ CCTV 경쟁임용 조건

- 기업초빙 임직원들은 《경쟁을 통한 간부임용 계획》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연령은 만 50세 이하로 현재 팀장(科组长), 프로듀서의 직급
- 센터(채널, 처급)에서 팀장,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
- CCTV에서 5년 이상의 전문 사업경험을 소지한 자
 - 사업 진행 가운데 5년 이내에 국가 급, 광전총국에서 수상을 한 주요 책임자
 - 국가 급 명예 칭호를 수여 받았거나 CCTV의 우수한 아나운서, 사회자
 - CCTV에서 수여한 최우수 프로그램상의 주요 책임자 및 청년<5.4> 메달 획득자

□ CCTV 4회에 걸친 인사과정

- 5월 12일에 가동된 CCTV의 《경쟁을 통한 간부 임용》을 근거로 한 첫 번째 개혁에서 채널 총감독, 채널 상무 부총감독 및 센터 상무부주임, 센터 부주임 등을 포함한 12개의 부국장급(副局级)직위를 설정하였다. 32명이 경쟁에 참가한 결과 최종 11명의 간부가 선출됐다.
- 6월 7일, 두 번째 개혁에서는 채널 부총감독과 센터 부주임 등 27개의 직위를 설정했다. 59명이 경쟁에 참가한 결과 26명의 간부가 선출됐다.
- 6월 24일, 세 번째 개혁에서는 채널 종합부(综合部), 프로그램부(节目部)의 주임 및 보도센터, 프로그램 구입센터, 광고경영 관리센터 산하의 각 부문 주임 등 20여개 직위를 설정했다. 37명이 경쟁에 참가한 결과 37명의 간부가 모두 선출됐다.
- 7월 5일, 네 번째 개혁에서는 채널 총감독 비서, 각 부문 부주임 등 43개 부처급(副处级)직위가 설정됐다. 본 개혁에서는 그 범위가 넓고 참여한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경쟁이었다. 301명이 경쟁임용에 참가해 1:8의 경쟁률을 달성했다. 그중 118명의 기업초빙 임직원이 경쟁임용에 참여해 참가 총인원수의 39%를 차지했고 17명이 부처급직

위에 선출돼 경쟁임용에 선출된 간부 중 40%를 차지했다.

- 네 번째 개혁을 통해 선출된 간부들의 평균연령은 39.3세로, 7명의 연령이 35세 이하였고 그 중 한명은 80년 이후에 출생한 여자였다. 여자간부 13명이 간부대열에 편입됐고 부처급 간부 중 31%를 차지했다.

□ CCTV 경쟁임용의 선발기준

이번 CCTV의 경쟁임용에 모든 임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. 특히 공개(公开), 공평(公平), 공정(公正)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많이 던졌고 경쟁선발체제가 과학적인지, 규범적인지, 빈틈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던지기도 했다. 특히 이번 개혁의 모든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고 조작을 아예 피했다.

- 경쟁임용은 초심, 재심 두 가지 방식을 취해 《개인강연》, 《문제해답》 형식을 취했다.
- 경쟁임용에 사용된 모든 명제는 중국 국가행정학원에서 CCTV의 개혁상황에 따라 각 채널과 프로에 대해 상세한 이해를 거친 후 일련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냈다.
- 심사위원들도 《전문가심사위원》과 《간부임직원심사위원》으로 나누었다. 심사위원에는 채널급 간부 40%, 팀장급 간부 40%, 임직원대표 20%로 비율을 맞췄고 전문가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을 70%, 간부임직원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을 30%로 적용했다.

□ 간부인사개혁과 잇따른 채널제(频道制)개혁

- CCTV의 이번 경쟁임용에서 간부직위는 채널제의 관리체제 배치에 따라 선출한 것이며 CCTV가 채널제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이번 개혁에서 CCTV는 새롭게 5개 센터(해외전파발전센터, 대형프로제작센터, 프로구매센터, 광고경영관리센터, 발전연구센터)와 6개 채널(종합 채널, 문예 채널, 희곡·음악 채널, 드라마 채널, 과학교육

- 채널, 사회와법 채널)을 재편성 혹은 새롭게 신설했다.
- 채널제를 실시한 후 집중적으로 채널 전문화와 수직화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관리부서가 대폭 감소됐다. 센터제(센터-부서-팀, 프로그램)의 관리체제를 폐지하고 평등화이원제(扁平化两级)관리 패턴(가. 상무부 총감독 및 부총감독-프로그램 책임프로듀서 나. 총감독 - 각 부서 부장)을 실행했다.
 - 사장(부사장)이 직접 프로그램부(节目部)와 종합부(综合部)를 관리한다.
 - 채널제 개혁 가운데 CCTV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.
 - 1) 프로는 채널에 따라야 하고 인원, 경비와 물자도 프로그램에 따라가야 한다. 우선 물리적 분할을 진행한 뒤 각 항 사업이 빨리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.
 - 2) 채널제가 실행된 후 각 채널의 사업과정을 완성하고 상관제도를 건립한다. 즉 프로그램 심의, 책임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.
 - 3) 프로그램의 삼심(三审)제도를 지켜야 한다. 특히 채널 총감독과 부총감독이 프로그램의 중심을 책임지며 중대 홍보 프로젝트와 중점 프로는 관할 책임 부사장이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. 언제나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유지하고 일관되어야 한다.

□ 채널제 초기 문제점에 대한 방안

- 진일보된 채널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.
 - 현재 CCTV는 새롭게 20여개 채널을 개설하였다. 채널제를 실행한 후 채널을 프로그램제작과 프로그램생산을 책임주체로, 책임의식, 관리능력, 자원의 재통합과 운용능력, 시장에 대한 임기응변능력을 강화했다. 채널제의 실행 목적은 최종적으로 채널의 품질과 경쟁력 및 영향력 제고에 있다.
- 채널제로 인해 관리기구가 간소화되고 기구와 인원이 감소되어 채널 내부 관리에 새로운 요구가 발생되었다. CCTV의 인사관공실에서는 기구, 직책, 편제, 인원을 새롭게 재정비한 후 채널내부의 관리구조를 새롭게 건립하여 채널 내 규범적인 기구와 인원을 배치했다.

○ 채널의 브랜드 프로그램을 건설한다.

- 프로그램 품질을 제고하고 브랜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채널제의 추구 목표이며 채널제 개혁 성공여부의 상징이다. CCTV의 사장 쑹우리는 “CCTV는 총체적인 연구 하에 CCTV-1을 뉴스보도 중심우수 채널로 정하고 기타 프로그램들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” 강조하였다. 기타 채널에 한해 종합채널처럼 높은 요구는 없지만 각 채널에 우수한 품질과 시청률,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CCTV는 금년에 프로그램 창신 전문자금으로 1억 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.